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 BETTER PEOPLE BETTER WORLD



## 건강 패러다임 바뀌야 자연치유력 높이는 신건강인프로젝트

머릿글 인테크연구소 대표 조관일

9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조은시스템 회장 김승남

커버스토리 힐리언스 선마을 촌장 이시형

구건서의 HR칼럼 노무법인 B&K 대표 구건서

기획특집-2007 제주아고라 지상중계

발행인 편지

회원 & 연구원소식

LMI for Your Personal Leadership

Culture Special

문용린칼럼

표지인물 이시형 박사 / 사진 오경근 원장

2007 September

# 9

등록 제19호 [비매월]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7년 9월 1일 발행인 : 정면기 인간개발연구원(KHHD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2203 8500(내) F.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 팀장 이재경 pas@khdi.or.kr 인쇄 : (주)동명인쇄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  
**늘 곧고 푸른 대나무 같은 마음으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흔들림없이 고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www.seoulgas.co.kr](http://www.seoulgas.co.kr)



# 하려면 제대로 하라

조관일 인테크연구소 대표

**작**년 봄까지 1년 남짓하게 강원도 정무부지사로 근무했다. 그때 주위사람들이 내게 붙여준 별명이 '애절론'이다. 그 이전, 농협중앙회에 근무할 때 붙여진 별명은 '제대로'였다.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강조하다 보니 별명이 되어버렸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게 나의 지론이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애절론', 이를테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건성으로 대충대충 해서 안 된다는 말이다. 진지해야 하고 온 정성을 쏟아야 하며, 제대로 하라는 말이다. 간절하고 절실해야 문제점이 보이고 아이디어가 나오며 해결책이 도출된다는 의미이다. 그것을 더욱 애타게 집약하여 표현한 말이 바로 '애절'이다. 그런 면에서 '애절론'과 '제대로'는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강의를 하기 위해 지방에 가보면 도로표지판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가끔 발견한다. 도로표지판은 그 지역 사람을 위해서 세워놓은 게 아니다. 그곳을 찾는 낯선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당연한 상식을 인정한다면 공무원들은 이방인의 눈으로 도로표지판을 만들었어야 한다. 그런 사소한 것 하나만 봐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다.

관광을 하기 위해 어느 군청의 관광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곳에 가 볼만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글쎄요..., 뭐 대단한 곳은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도하겠다는 애절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지역이 '관광1번지'가 될 수 있겠는가.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샀는데 후진할 때의 경보음에 문제가 있었다. 경보음은 경보음답게 분명해야 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어야 할만큼 소리가 너무 작았다.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곳의 서비스센터에 의견을 접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원래 그런 것"이란단다. 더 황당한 것은 "고급 승용차이기 때문에 일부러 소리를 작게 했다"는 변명이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속이 탄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절대로 그 회사의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그러면서 '고객만족'을 외친다? 그것은 고객을 속이는 '고객기만'에 다름 아니다.

안경의 코걸이가 콧등을 아프게 하기에 안경점에 가서 바꿔달라

고 했다. 주인양반이 코걸이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면서 한마디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이걸 수입품입니다"라고. 코걸이 하나를 수입품만큼 만들지 못할 정도의 안경회사라면 망해도 싸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경영자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 진지하고 간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네 직장인들이 갖는 가장 큰 결함의 하나로 나는 진지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음을 꼽는다. 그러기에 혁신이니 부패척결이니 구호는 많고 결의는 요란해도 실제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고객만족이니 고객감동이니 하지만 그것 역시 수박겉핥기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 고객만족경영과 고객만족행정이 도입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으면서도 아직 고객으로부터 서비스가 감동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밖으로 내보이는 보고서나 컨설팅 자료,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금은 치열한 경쟁의 시대이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쟁의 시대에 시간·공간·국적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월드클래스'가 되려면 그 으뜸 조건이 상대방(고객)으로부터 '와우(Wow)'란 감탄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와우경영(Wowing Management)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당신을 대하는 상대방이, 그리고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와우'하며 감탄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 감탄사를 듣고 싶다면 무슨 일을 하든 애절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 **▶▶▶**



조관일 대표

1949년 생으로 강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테크' 이론의 창안자로 농협 강원지역본부장, 농협중앙회 상무, 강원도 정무부지사, 강원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원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관일 인테크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이며,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라, 나이가 경쟁력이 되게 하라, 깔깔깔 강의유머기법 등 여러 저서가 있다.

9월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을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창조적인 삶의 高手를 찾아서

1516회 9월 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앨빈 토플러가 정보화 시대를 예견한지 25년이 지난 현재, 정보와 지식의 빠른 범용화라는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는 이미 범용화된지 오래이다.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보급 확산, 정보 공개의 확대, 정보 매체의 다양화 때문이다.

검색 엔진, 블로그, 전문 정보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서적 등을 활용하는 약간의 수고만 기술인다면, 누구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 또한 점점 범용화되고 있다. 컨설팅 회사, 시장 조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지식 생산 주체로부터 수많은 전문 보고서들이 매일 쏟아져 나온다. 지식의 홍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와 지식이 희소성을 잃고 범용화되면서, 정보 분석이나 지식 창조 업무가 유망 전문 직종이라는 것도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사무직이라면 누구나 수행하는 일상 업무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와 지식 이후에 무엇으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이다. 정보와 지식은 이미 쉽게 찾을 수 있는 범용재가 되었다. 정말 희소한 것은 현안 난제를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이처럼 지식 경제가 정점에 도달하고 정보와 지식이 폭증하면서, 축적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앞으로는 새로운 경쟁우위와 부의 원천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1970년대 초 불모의 광고계에 투신하여 새로운 직업분야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칼럼니스트, 문화평론가 등 화려한 필력을 과시했던 우리나라 카피라이터계의 개척자 이만재 카피라이터를 초빙하여 30여 년간 경제계와 문화예술계의 창조적 高手들을 섭렵하는 가운데 축적된 재미있는 人物評傳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만재 카피라이터

1970년대 '카피라이터'라는 용어 국내 처음 정착 | 서울카피라이터즈클럽(SCC) 회장 | 대한민국광고대상 심사위원 | 공익광고심의위원 |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광고대상 심사위원 | 한국방송광고대상 심사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자문위원 | 카피파워 대표 | 칼럼니스트, 인물평론가, 방송인

<저서> 실전카피론1, 2, 카피라이터 입문, 인간으로 오신 예수, 막짜낸 찜빵, 카피라이터의 술잔, 서서 자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외

## 나노기술과 수소에너지의 미래

1517회 9월 13일 COEX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룸

"상상력을 갖고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이 다가온다" 임지순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나노과학의 대가로서 미래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의 저장기술 연구 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거두고 있다.

나노기술은 분자나 원자 정도의 극미세한 크기 영역에서 물질을 설계하고 조작하고 합성하는 기술이며, 바이오기술(BT)과 정보기술(IT)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융합기술로서의 역할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기술은 유전정보를 밝히고 새로운 방법으로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나노-바이오 영역과 반도체 메모리(기억소자)의 크기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성능은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소재를 합성하는 나노-정보기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소는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부피가 커서 대량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으로 압축을 해야 한다. 하지만 폭발위험이 높아서 실용화는 쉽지 않은 상태이다. 임 교수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노기술을 이용한 폴리머를 만들어 수소를 주입하면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물질 사이사이에 수소가 들어가 폭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98년에는 탄소나노튜브를 다발로 묶으면 반도체가 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을 들으며 2006년 말 '국가석학'으로 선정되기도 한 임지순 교수를 초빙하여 나노기술이 에너지와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과연 수소에너지 시대를 가능케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미래의 청정에너지로서 기대되는 수소가 인류의 실생활, 특히 자동차 연료로 쓰이기 위한 조건과 기술적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임지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 美 버클리대 물리학 석·박사 | 美 MIT 물리학과 연구원 | 美 AT&T Bell연구소 연구원 | 美 Bell Communications Research 상임연구원 |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상훈> 한국과학상, 제1회 관악대상, 한국 물리학회 학술상, 제5회 윤경상,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석학 선정, 제1회 포스코 청암상,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외

## 금융선진화가 국가경쟁력이다

1518회 9월 2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금융산업 선진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산업의 GDP 비중이나 GDP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황이며, 고용창출을 포함한 국민경제 기여도에 있어서도 금융산업의 더 큰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특히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금융경색과 같은 외부충격을 더욱 잘 감내하기 위해서도 자본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금융섹터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다. 글로벌시대에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국제화(Financial Globalization)가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감독체계의 선진화와 금융인프라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금융 전문인력의 육성과 유치가 금융국제화와 선진화의 핵심 과제이다.

금융역량의 강화는 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 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업경영 전반에 접목, 확산되어야 한다.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적 M&A를 포함한 세계금융시장 메커니즘을 전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국제금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국제금융전문가로서 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해 경제부총리 특보로 많은 활동을 했던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회장을 초빙하여 금융선진화를 통한 3만불 시대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인디애나대 경제학 및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 美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美 미시간주립대 경영학과 교수 |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 고문 | 국제금융센터 소장 |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 포스코 사외이사

<저서>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 외

※ 9월 27일 경영자연구회는 추석연휴관계로 휴회하며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로 대체합니다.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웃다가 성공한 여자 **진수 테리의 편편(fun fun)한 경영**

웃는 회사가 성공한다. 편을 잡아라.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과 세계 기업을 편 하나로 정복한 여자, 진수 테리

• 일시: 2007년 9월 17일(월) 저녁 7시 • 장소: 미정(추후 공지)

제151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8월 9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 베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성공법칙, 사람에게 투자하라

김승남 조은시스템 회장



**평** 소 나의 지론은 'take=give+a'이다. 돌아오는 것은 주는 것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알파가 붙어서 돌아온다는 것이다. give는 주는 것, take는 받는 것에 알파는 증대다. 그래서 많이 주면 줄수록 알파가 더 커진다는 원리다.

## 감사하는 마음이 경쟁력의 요체

여러분께 묻고 싶다. 좋은 자세와 좋은 태도는 어디에 쓰일까? 리더십과 take=give+a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네트워크는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은가? 우리 사회를 멋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만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할 일만 생긴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보다 더 나쁜 일에 비해서는 감사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이 생긴다. 감사해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의 요체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그 사람 앞에 누가 경쟁하겠는가. 이런 사람은 적이 없는 '무적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지구의 모든 생물에 주신 자원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이다.

나는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왔지만 걱정 안하고, 원망 안하고, 항상 감사만 했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일이 생겼다. 만약 내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면서 살았던 덕분이었다고

본다. 나는 21년 동안 군 생활을 했다. 그 중에서 13년은 주로 강원도 양구, 고성, 원통 등 동부전선에서 지냈다. 많은 군인들이 오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나는 21년 동안 한번도 서울에서 근무하지 않았지만 항상 감사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웠고, 남들보다 진급도 빨랐다.

그런데 1980년 5월, 대령진급을 앞두고 군단장 심부름으로 육군본부에 갔다가 인사관리처장을 만났다. 진급이나 보직을 관장하시는 분이데, 나를 보자 갑자기 광주 지역에 시위가 심해지고 있으니 광주연대장으로 가야겠다고 했다.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나고 물었더니, 금년에 진급하려면 가야한다고 했다. 부대로 돌아왔더니 군단장은 내가 육군본부 가서 보직운동하고 왔다고 화를 내셨다. 결국 5월 12일 발령이 났고, 13일 부임신고를 했다.

그리고 5일만에 광주사태가 났다. 큰 격변을 치른 사건으로 당시 아주 힘들었다. 연대 산하에 있는 예비군 무기와 탄약을 모두 들고 나왔던 것이 나중에 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군에서 제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군단장이 인사관리처장에게 전달하러던 편지는 '김승남이 똑똑하니 꼭 이번에는 진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전해주기만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발령이 났고 결국 군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런 일 자체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너무 담백하고 홀가분하다.

그 후로 11년 동안 금융기관에 있었다. 충북은행에서 안전관리실장 등으로 있다가 저축본부장을 하게 됐는데, 노조에서 군 출신이 본부장을 한다고 반대를 했었다. 당시 은행 대주주가 김우중 회장이었다. 노조반대가 심하니까 김 회장이 나를 불러 격려해주셨다. '21년간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군대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사랑할 것이다. 충북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라고 말씀드렸다. 그 날 김 회장은 나에게 대우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냐고 했지만 청주에 남아 있겠다고 했다.

그렇게 헤어진 후로 회사를 창업하고 보험회사로 전환했을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군대를 사랑하고, 충북은행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겠다고 했던 말 때문에 나를 뒤에서 돌봐주신 것이다. 그 때 노조반대에 대해 내가 불만을 터뜨렸으면 그 분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융인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은행에서도 7년 있었고, 보험회사에도 5년 있었다. 보험회사에 있을 때는 모든 보험사에서 김승남을 스카우트해야 한다고 난리였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는데, 그 자체가 항상 감사, 매일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매번 생겼다. 이것이 경쟁력의

요체이다.

## 낮추면 높아진다

조은시스템이나 잡코리아도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군에서 내 보좌관이었던 후배가 찾아왔다. 그 때 마침 막내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는데, 학교 작문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작문 주제였는데, 아들에게 방 한 칸씩 만들어주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이 아들의 작문 내용이였다. 당시 빗보증을 잘못 서서 방 두 칸에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다. 그게 동기가 되어 그 후배가 찾아와 도와준다고 경비보안허가증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김우중 회장과 말씀드렸더니 사업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필요한 돈 1억원을 주셨다. 가족과 상의한 후 '하나님이 하라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으로 조그맣게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은 4평 창고에서 가족까지 포함해 직원 4명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13년차인데, 우리나라 보안회사 계열에서 3위 정도의 회사로 성장했다. 연매출 1천억원에 직원이 3천명 정도 된다. 인천공항이나 주한미군 전체 경비보안서비스, 금융권 보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모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죽을 때도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도 이 마음을 전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낮추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군인 출신,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것은 큰 문제다. 항상 낮추는 것, 상대방이 30도로 절하면 자기는 90도로 절하면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무엇인가에 미쳐라

그리고 '미쳐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4번 미쳤다. 앞으로 2번 더 미칠 생각이다. 처음 미친 것은 바둑이다. 현재 실력이 아마 4단이다. 보병학교 작전교관 할 때 선배 한 분이 바둑도 못 두면서 무슨 작전교관을 하냐고 비웃었다. 바둑에 많은 전술이 있다는 것이다. 그 길로 기원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에게 내 한달 월급을 드릴테니 6개월간 집중지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분이 내 열정을 보시고 승낙해주셨다. 매일 프로 바둑기사와 바둑을 한판씩 두고 기보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배웠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을 때, 아마 4단 단증을 받았다. 그리고 바둑을 모른다고 비웃던 선배와 바둑을 두자고 해서 이겼다. 그 때는 바둑에 미쳤었다.

두 번째는 컴퓨터에 미쳤다. 20년 전에 컴퓨터라는 것이 처



음 나왔었다. 처음 DOS, 286, 386이 나왔을 때는 책을 다 외워야 했다. 명령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딸과 함께 구경을 갔었다. 처음 보는 컴퓨터는 정말 신기했다. 바로 배우기로 마음먹고 학원에 등록해서 3~4년간 컴퓨터에 미쳤다. DOS시스템을 완전히 다 외운 것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노트북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노트북 판매 시작일에 첫 컴퓨터를 샀다. 그걸 들고 청주에서 서울까지 e-비즈니스과정을 들으러 다녔다. 은행 내에서 전산부 직원들도 내게 와서 물어보곤 할 정도였다.

그 때 미국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오신 분들과 지금도 친하지만 그 분들보다도 실무에 더 밝았다. 그래서 IT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미쳐서' 컴퓨터 전문가가 되었다. 사실 그 때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목근육이 지금도 좋지 않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전문가겠지만, 군인 출신으로서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미쳐서 자랑할 정도로 전문가라고 하고 다닐 수 있으니 정말 즐거운 인생 아닌가?

세 번째로 10년 전에는 인터넷에 미쳤었다. 즐기는 사람은 알겠지만, 너무 재미있다. 무엇이든 궁금한 것을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렇게 인터넷에 빠져서 인터넷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잡코리아를 설립했다.

잡코리아를 설립했을 때 구인구직, 포탈, 커뮤니티사이트 3가지를 모두 했다. 이재웅 사장의 다음(Daum), 인터넷경매의 옥션(Action), 오상수 사장의 새롬기술도 그 3가지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 3가지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다 망할 것 같았다.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나서 '이대로는 다 망할 것 같다, 지금은 1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인구직 하나만 하고 두 개는 없애겠다. 당신들도 하나만 하고 정리를 하자'고 했다. 그렇다고 어떤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

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 결국 4개 회사가 모두 성공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군인 출신이 한참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다 망하겠다고 말하고, 하나씩만 하자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마니아, 또는 전문가로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요즘 몇 년 동안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미쳐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13명에게 부부동반으로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에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해뒀다. 가게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유창한 중국어로 신나게 통역하는 것이 지금 내 목표이다.

앞으로 10년까지는 무엇에 미칠 것인가. 엔터테인먼트에 미치려고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 연극, 영화, 뮤지컬, 오페라 가운데 우리 사회를 밝고 신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엔터테인먼트에 미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고고학이나 인류학에 미쳐볼까 생각 중이다. 우리 주변에는 미칠 소재가 너무나 많다.

### 실력 없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주변을 밝게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 군인 출신들이 은행에 가면 대부분 은행의 안전관리를 맡는다. 하지만 나는 예금유치원으로도 일했다. 밥값은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예금을 유치하기도 했었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내 지론 가운데 하나다. 실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은행에서 저축본부장을 못하고 조사본부장을 할 때, 보험사가 많이 생기고 있었다. 당시 은행에서는 보험사에 출자를 하고 있었다. 은행장은 나를 임원에 앉히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노조에서는 일제히 나를 보험사로 보내라고 했다. 나 또한 흔쾌히 보험사 임원으로 갔다. 그곳 사장을 만났을 때 '나는 보험의 보 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임원이라고 도장만 찍어서 되겠습니까?' 하고는 부장으로 가겠다고 했다. 부장이 더 힘든 자리라고 말렸지만 가서 1년 동안 실력을 쌓고, 보험유치도 적으면 그만두겠다고 했다.

첫날부터 1년 동안 직원들 옆에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매일 밤11시까지 배웠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로 올라와 보험유치를 위해 뛰어다녔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보험영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때 창업하지 않았다면 아마 보험사에 계속 남아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부장으로서 배우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별 것 아니다. 기여 안하고 도장만 찍으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이다.



요즘은 아랫사람을 높여야 하는 시대이다. 그래야 존중받는다. 이익을 추구하고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에고(Ego)의 본질 때문이다. 사실 에고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나님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에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님께 그런 것이 없었다면 왜 세상을 창조했겠는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존중해야 할 부분이다.

## 모든 것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

오늘 사실 주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었다. 주변 어떤 결과가 오는가. 돈은 누구의 것인가. 자기 자신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주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인가 등 주는 것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

군생활 때 건설회사를 경영하시는 지인이 사과 30박스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 그것을 받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가 재정보증을 서달라고 했다. 사과 30박스에 대한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도망가버렸다. 내 급여도 압류 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찬스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10년이 걸렸다. 10년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모은 2천만원을 가지고 창업하게 된 것이다.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현금했다. 결국 남은 1천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창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때 김우중 회장께 돈을 받아서 가족과 상의하고, 쉬고 있던 군 선배에게 상의했다. 새벽예배를 보고 돌아오시는 선배를 만났다. 앞으로 창업할 예정인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선배는 자신의 돈 5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돈으로 돌려드렸다.

잡코리아는 직원들의 눈물과 노력으로 일궈진 회사이다. 회사의 성공요인은 3년간 무료서비스를 한 덕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유료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잡코리아는 3년 동안 투자한 3억원이 다 나가고 자본금이 바닥나서 증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서로 잘 되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날의 1천억원이 넘는 조은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업인들이 주는 문제, 특히 잘 주는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코치와 멘토를 가지고 있다. 코치는 최운열 박사와 유승렬 사장이다. 두 분 다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바로 통화할 수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모든 일에 있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

람들이다.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멘토는 나의 부인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 상의한다. 보통의 부인들이라면 울고불고했겠지만 항상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내는 기도하며 나를 바른길로 가도록 도전을 주는 멘토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김승남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극복해왔다. 특히 참존의 김광석 회장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꾸로 정신이 있어서 회사에서 청개구리가 나온 것 같다. 나도 조은시스템을 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 도전했다. 좋은 멘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접 좋은 멘토가 되라.


## 우리사회를 밝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

가치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앞으로는 사랑 받는 기업이 성공과 실패의 판정요인이 될 것이다. 돈이나 명예, 지위가 아니라 꿈꾸는 이상이 아름답다면 성공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실까'이다. 내 꿈과 소망은 조은시스템, 조은세이프 등을 합쳐서 조은재단을 만들어 다른 좋은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유한양행의 유한재단이 4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나의 목표도 유한재단처럼 크게 키우는 것이다. 사회를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역동적이고 장점이 많은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의 아름다운 본질이 나타나도록 후원하고 싶다. 그리고 내년에는 NGO를 만들고 싶다. 그곳은 좋은 점만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단체였으면 한다. 단점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점을 부각시키는 목소리를 내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도 없었지만, 한번도 부동산을 사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땅을 샀다. 정말 아름다운 곳에 샀다. 그곳에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서 남북의 청소년을 다 모아서 역동적인 미래를 노래하고 우리사회를 밝게 만드는 진취적인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사회를 밝게 만드는 미래를 만들자. 기업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이다. 이제는 기업인들 스스로 변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남기려는 모습을 버리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 존경받는 일을 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 변화를 추구하는 열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더 큰 축복은 꿈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실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 건강 패러다임 바뀌야 자연치유력 높이는 신건강인프로젝트

이시형 힐리언스 선마을 촌장

"자 연의학이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건강증진 차원으로 발전하는 추세죠. 선마을은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생물체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이시형 박사.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 일해오던 그가 인공화학물질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 속 부작용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힐리언스 선마을'을 만들어 촌장의 이름표를 달았다.

선마을의 중심은 신건강인프로젝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최대의 수명으로 질병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조되는 것이 올바른 생활습관이다. 우리의 일상에 조급함이 가중되면서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병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의 인류 공헌도를 감안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박사의 지론. 중독에 가까운 현대인들의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신건강인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이시형 박사를 지난 14일 만났다.

<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 먼저 '힐리언스 선마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힐리언스(Healience)란 Health Science, Healing Experience의 합성어로 과학적 건강과 치유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선(仙)마을은 말 그대로 '신선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생명체 본성인 자연치유력을 높이고 신건강인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겁니다.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며, 9월 15일에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에 위치한 선마을은 전체 27만평 부지에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내 최초의 웰니스(Wellness) 전문 시설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씨가 설계를 맡았는데, 방안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시설을 갖추고 있죠. 특히 선마을은 일체의 화석연료를 배제하고 지열, 태양열을 이용하여 공조시스템이 작동되는 친환경적 시설입니다. 여기에 숙소를 비롯한 세미나룸, 피트니스룸, 명상룸, 자연친화 트레킹 코스, 스파, 유기농 체험단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마을은 입소체형처방프로그램과 신건강인 진단 및 처방 사후관리를 위한 클리닉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데, 3가지 원칙이 있어요. 모든 방법이 과학적이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하며, 힘 안들이고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마을의 이념이자 철학이죠. 이 원칙에 따라 선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 선마을을 만들게 된 취지나 계기가 있었을텐데요.

요즘 우리의 삶은 과학중독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문명은 편리, 쾌적, 효율 등을 추구하죠. 어떻게 보면 살기 편해지긴 했는데, 환경파괴, 공해 등 부정적 측면도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자연의 섭리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생활습관, 리듬이 파괴되는 거죠. 우리는 수천년 동안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밤이면 집에 들어와 자곤 했는데, 요즘 도시에는 밤이 없어져버렸어요. 생활리듬이 깨진 겁니다. 식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굶주림에 대한 DNA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불과 몇 십 년만에 영양과다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비가 안 됐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마음습관입니다. 여유를 미덕으로 삼던 우리 민족이 갑자기 거칠어지고 경쟁적인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겁니다. 암부터 시작해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은 모두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돼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장기에 병변이 생겨야 비로소 진단과 처방을 내립니다. 위장에 구멍이 나야 위장병이지 그 전까지는 소화불량이라는 거죠. 문제는 병이 극초기단계이거나 진단이 되기 전에 진행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선마을을 찾는 분들이 바로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선마을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습관병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화두는 단연 건강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할 때라는 거죠. 이만큼의 발전을 이끌어온 이들이 바로 50대의 기업체 간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

람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언제 회사를 떠나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 분들을 만나 봤더니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았습디다. 자녀들은 성장하고, 벌어놓은 것은 없는데 건강까지 위험수준이니 걱정이죠. 이 분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것이 노의사로서의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현대의학은 인류의 건강에 큰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한계점도 없지 않습니다. 장기에 병변이 생겨야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고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는 게 현대의학이죠. 중요한 것은 병이 발견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인공화학제품을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화학약품을 사용해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스피린을 해열제로 알고 사용하고 있지만 아스피린을 먹고 오히려 열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일도 생기죠. 결국 현대의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병이 나기 직전의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지 뻔히 알면서도 뭐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진단이 나와야 보험 적용도 되는데, 보험도 안 되는 환자를 잡고 교육시킬만한 시설이 병원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기껏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하는 '협박교육' 뿐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자연의학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고, 약을 쓰지 않고도 건강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자연의학의 궁극적인 이상은 병원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자연의학이 가장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의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감기는 아주 흔한 병인데요. 자연의학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찬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리죠. 감기에 걸리면 열 나고, 눈물, 콧물, 재채기, 기침, 가래, 발진, 발열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몸은 차가워지면 대사가 정지돼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화가 돼서 나갈 건 빨리 나가줘야 하는데 정체가 되니까 몸 속에 노폐물, 중간대사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몸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사실 몸을 데워서 소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결국 감기 증상 모두가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치유적 반응이죠. 그런데 열 난다고 해열제를 먹어서 몸을 식혀버리면 몸은 또 정체가 되겠죠. 어찌 보면 종합감기약은 우리 몸을 틀어막는 겁니다.



■ 이사항 박사는 병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시형 박사와 정만기 회장이 14일 만남을 갖고 대담을 나누고 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주사를 맞는데, 이것도 몸의 순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감기에 걸리면 따뜻한 국물 먹고, 군불 지펴 놓고 이불 뒤집어쓰고 땀을 푹 흘렸습니다. 이 말은 찬바람 쐬고 돌아다녔으니 아프면 하루 푹 쉬라는 겁니다. 의사들도 감기에는 약이 없다는 말을 해요. 75%의 의사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병으로 감기를 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약부터 찾는 겁니다.

### 신건강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신건강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건강' 하면 본인만의 건강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건강인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직장, 사회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신건강인은 모든 면에서 균형잡힌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일과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 몸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 휴식과 수면이 적절한 사람, 절주, 금

연하면서 몸의 균형과 영양을 잘 유지하는 사람, 적절한 운동을 할 줄 아는 사람, 가급적이면 약물과 의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사람, 안전습관을 실천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사람 등이 신건강인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 선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건강인 프로젝트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에 육박하지만 건강수명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선마을의 목표 중 하나가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건강한 노년생활을 누리자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8.5세로 남성이 75세, 여성이 82세입니다. 남녀간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7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문제

는 장수국가로 알려진 일본은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간의 갭이 7.6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수명이 67세로 11년 정도 차이가 나죠. 결국 건강하지 않은 노인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제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총장님께서 저희 잡지에 1년 넘게 고정칼럼을 쓰시면서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에 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정서적인 면에서 뭔가 불안감을 안고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사회의 병리라고 하면 '중독'입니다. 과학중독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역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모두 에스컬레이터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바로 옆에 계단은 텅 비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술, 담배, 도박중독이 심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조급증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빨리빨리'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명물이 됐어요. 이 자체가 경쟁적이고 거친 모습입니다. 빨리빨리에 시달리면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6시간을 교감신경이 흥분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선마을에서는 사람들에게 감성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좀 느끼자는 거죠. 흔히 도심 하면 아스팔트를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이든 화분 하나 없는 집이 없고, 밖에 나가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새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를 마음이 너무 거칠고 급하고 격하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느낄 시간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선마을에 오면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연명상이라고 해서 2시간 동안 산을 돌아다녀요. 그러는 중에 계곡물 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듣고, 풀벌레 소리도 듣는 거죠. 또 옷통을 벗고 바람결을 느껴보고, 하늘 한번 바라보고, 흙냄새 맡고, 맨발로 흙도 한번 밟아보는 등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메마른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하고 격하기 때문에 자연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제는 자연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징파워〉라는 저서에서 'YO세대(Young Old)'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에이징파워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힘이 세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인생 내리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오르막이 됩니다. 우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는 전체 체력의 6분의 1 정도밖에 쓰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긴급사태를 대비해서 여유를 둔 거죠. 그래서 체력이 반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평소 생활

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체력이 약하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말이 됐어요.

둘째는 나이가 들면 정신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당장의 압기력은 떨어지겠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언어이해력, 대인관계력, 자연력 등 종합판단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발달하죠. IQ는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으로 나뉘는데, 동작성 지능은 좀 떨어지지만 언어성 지능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올라갑니다.

셋째는 나이가 들면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몸의 유연성은 떨어지기도 머리의 유연성은 올라갑니다. 유연성은 교육수준과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종합판단능력이 떨어져 어느 한 가지에 빠져들면 아주 깊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나이가 들면 창조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역시 그렇지가 않아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있어서는 젊은이들이 낫죠. 그러나 창조력은 많은 지식과 지혜가 무의식 속에 녹아들어야 발휘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의 지식이나 경험은 60~70대와 비교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해마(海馬)'라는 기억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해마 속의 신경세포가 증식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머리는 쓰면 쓸수록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사회력입니다. 힘이라고 하면 체력, 정신력, 사회력을 이야기 하는데, 사회력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죠. 돈 있고, 시간 있고, 경험 많고, 지혜 많고, 단단한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 삶의 경험이나 인간적 깊이에서 비교가 되질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징파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힘이 YO세대에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YO세대를 생산자와 소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에이징파워를 잘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 힐리언스 선마음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신건강인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선마음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격에 맞는 의료시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그에 걸맞는 의료시설 하나는 있어야죠.

그리고 한국 성인들의 62.3%가 지금 당장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이미 병이 경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병이 되는 사람들이

죠. 지금 예방하지 않으면 국가가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지금 노인의료비가 해마다 21%씩 증가하고 있어요.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20% 수준인데, 50% 수준까지 올라가면 어떤 정부라도 복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서 먼저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스위스 등 자연의학 선진국에서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처방하면 보험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한 사람의 노인의료비면 수십명의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고,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마을의 연간 수용규모가 1천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이것은 시범시설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의사들이 찾아와서 각 지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제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국내 주요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도 형성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화를 준비해야겠죠.

###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강사로 참여하시는 등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인력'이라는 것도 결국 건강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면 결국 건강 싸움이 되는 거죠. 기업경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경영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만날 수도 없고, 사업도 영위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원이 경영자들의 건강을 개발하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연구원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 이시형 박사

1934년 생으로 경북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美 예일대 신경정신과 박사, 경북대 신경정신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버지니아병원 청소년과장, 고려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및 원장을 지낸 바 있다.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도 활동했다. 한국사회정신의학회 회장, 한국신경정신의학회 회장,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동남신경정신과 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 건강100세연구소를 설립한 뒤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으로 개칭한 후 이번 9월 강원도 홍천에 힐리언스 선마을의 문을 열었다.

성공하는 기업의 인재전략

# 본데와 싸가지 있는 사람을 뽑고 잘 키워야

구건서 노무법인B&K 대표

**가**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사람관리에 특별한 비장의 무기(?)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얘기를 듣는다. 나도 조그만 컨설팅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사람을 채용하고 평가해서 배치하고 보상하는 사람관리가 기업경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비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람은 얼굴 생김이 모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관이나 이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사관리와 노사관계에서 단 하나의 유일한 정답이나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챙겨주는 수밖에 별다른 비법은 없다. 그럼에도 많은 컨설턴트와 전문가들이 인사관리에 대한 원칙이나 노사관계의 방향이나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늘어놓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 사람을 잘 골라 뽑아야

뽑는 것은 경영자의 맘이지만 내보내는 것은 맘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람관리의 시작은 인재를 뽑는 것에서 시작한다. 잘 뽑은 인재(人材)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잘못 뽑은 인재(人災)는 부채로 남아 회사에 짐이 된다. 요즘 이혼이 늘어나고, 특히 황혼이혼이나 대입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헤어지는 이면에는 애초에 만남이 잘못된 것이 많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된다.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애초부터 서로가 잘못된 만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경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법(근로자), 파견업체에서 사람을 빌려쓰는 방법(파견근로자), 일정부분을 통째로 도급으로 맡기는 방법(도급 또는 외주화), 개인에게 자유직업소득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업무위탁) 등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경영자의 맘이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활용하든지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보호법의 보호와 노동조합법을 조직할 수 있는 노동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도 근로계약을 맺는 기업과 일을 시키는 기업이 다르므로 2중적인 위치에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파견근로자는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다.

'도급'은 민법상의 제도로서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도급을 주면 수급업체의 근로자는 수급업체가 지시감독을 해야 한다.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업체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지시감독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장도급으로써 불법파견의 위험이 있다. '업무위탁' 역시 자유롭게 일을 하도록 맡기고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다면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 본데와 싸가지 있는 인재를 뽑아야

본데와 싸가지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데는 순수한 우리 말(보아서 배운 범절이나 지식 또는 솜씨)이지만 싸가지는 표준말은 아니고 방언(앞으로 잘 트일 만한 김새나 징조의 의미를 갖는 '씩수'의 방언)에 해당한다.

기업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본데와 싸가지는 무엇인가? 몇 가지로 추려보면 열정(Enthusiasm), 배려(Respect), 전문성(Expert), 독립성(Independence), 도전정신(Challenge), 고객성공(Customer)이 된다.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US Steel 회장인 찰스 슈왈은 "사람에게 열정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열정(Enthusiasm), 배려(Respect), 전문성(Expert), 독립성(Independence), 도전정신(Challenge), 고객성공(Customer) 등 본데와 싸가지 있는 인재를 뽑고 키워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했다. 일을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없다. 기업에도 부채로 작용하는 사람으로 다른 곳에서 조금만 급여를 더 준다고 하면 쉽게 떠날 사람이다.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찾는 인재가 진정한 인재다. 징기스칸에

게서 열정을 빼면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다는 광고를 다시 돌려볼 필요가 있다. 열정을 가진 인재가 기업성장의 밑바탕이 된다.

두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헛똑똑이다. 조직은 절대 혼자 잘한다고 생존하는 단순한 산수게임이 아니다. 자연과학적인 산수는 '1+1=2'이지만, 인간사회에서는 '1+1=100'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1=0'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동료를 존중하고, 상사와 부하를 존중하는 배려의 문화가 기업이라는 조직을 성장시키는 활력소가 된다. 아울러 협력업체와 경쟁업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 번째는 경쟁력의 바탕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가 성과를 내는 세상이다. 무한경쟁, 국제경쟁 시대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자기의 전문분야에서는 박사에 부럽지 않은 실력과 고집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분야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이해하면서 자기의 전문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스스로 처리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모든 근로자가 스스로 사장이 되어야 한다. 복잡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일이 지시감독을 받고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일 처리를 해야 한다. 법이론상은 지시감독을 받아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시키는 일만 하는 비자주적인 사람은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스스로 사장이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과감히 시도하는 '도전정신'이 있어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도전은 두려운 존재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살아남기 어렵다. 99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1백번 도전하는 자세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위험은 없는 대신 살아남지 못하고, 도전하면 위험은 있지만 생존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고객성공'의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기업은 고객이 모든 것이다. 고객을 위해 기업이 존재하고 기업을 위해 사람이 존재한다. 고객에 대한 가치관도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을 넘어 '고객성공'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고객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이 어렵다. 모든 것은 고객성공에 중심을 맞추어야 한다.

**본데와 싸가지 있는 인재를 키워야**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자식을 하나 혹은 둘만 키우는 현실에서 본데와 싸가지 있는 인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성적지상주의와 학벌만능주의가 판치는 이 사회에서 기업이 원하는 본데와 싸가지 있는 인재를 뽑는다는 것은 한강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쓸만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은 기업이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쓸만한 인재를 찾아내는 것은 경영자의 복이지만, 쓸만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다. 대한민국은 사람 이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다른 나라에 팔아서 돈이 될만한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는 자원빈국이다. 오로지 인적자원 또는 인적자본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밑천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러한 인적자본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인적자본을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며, 그 속에서 기업도 생존하고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추락하지 않는 길이다. **▶▶▶▶▶**



**구건서 대표**

노사관계·HR전문가로 활동중인 구건서 대표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89년 독학으로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노무법인B&K 대표공인노무사, B&K휴먼캐피탈 대표,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협 연봉제, 노사혁신프로젝트, CEO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기준법 등 14권의 전문서적을 집필했으며, 노사관계 경쟁력을 위한 자문과 컨설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5회 제주 CEO 포럼

# JEJU AGORA

## 세미나 대주제 아이디어고라스와 한국기업의 힘

2007 제주 아고라 조직위원회 대표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 윤계섭



현대경영학당  
이사장 변형운

인간개발연구원, 현대경영학당,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공동 주최한 제25회 제주 아고라(JEJU AGORA) 통합세미나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제주신라호텔에서 그랜드 오픈되었습니다. 지난 24년간 제주 밀레니엄포럼을 주관해온 인간개발연구원과 2005년부터 제주 아고라를 출범한 현대경영학당,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제후한 2007제주 아고라 조직위원회는 올해 대주제를 "아이디어고라스(Idea+Agora)와 한국기업의 힘"으로 정했습니다. '토론의 광장'이란 뜻을 지닌 아고라와 아이디어를 합성한 아이디어고라스로 기업경영의 신활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제주 아고라에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영주 산자부 장관,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김세원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일용 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 이용섭 건교부장관,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황수 GE코리아 사장, 김영익 대한투자증권 부사장, 이상영 부동산114 사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이백용 바이텍시스템 사장, 송지혜 한국피아노교습법연구소장 등 정부 최고위 정책 브레인파와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이 초청된 가운데, 다양하고 깊이있는 주제발표와 함께 무한경쟁의 기업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긴급과제와 대응책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에서는 21세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으로 제주 아고라의 주요 세미나를 기획특집으로 시상중계합니다.



사진 및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 ① 제주 신라호텔 강연장 전경
- ② 참가자등록증인 회원들
- ③ 세미나 주최측 인사들
- ④ 만찬에 참석한 참가자들
- ⑤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 ⑥ 이심 회장 부부가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 ⑦ 제주 아고라 단체사진





## 기조강연 | 상자 밖을 보자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대** 양을 향해하는 배의 선장이 가진 1차적 임무는 무엇인가? 내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주변상황의 파악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람은 어디로 불고 태풍은 어디쯤 있는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방향을 잡아가면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방향을 잡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호'는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작은 배다. 육지 면적이 세계 육지의 0.0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는 세계 인구의 0.8%인 4천800만이고, 세계 인구밀도 평균보다 10배나 높은 인구밀도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자원은 거의 없다.

그에 비해 지리적 조건은 좋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주위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굴욕의 계곡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당해왔지만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국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기세와 기강을 나타낸다. 우리가 이런 특성을 활용했다면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60년대 이후로는 수출 지상주의로 산업화에 성공,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미국의 인권주의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05 세계자유상향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영국, 덴마크 등과 같은 '정치적 자유도 A'

등급의 나라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없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뛰어난 지리적 요건이다. 미국에서 유라시아로 가는 최단 노선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있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어디에나 항구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5%가 바다를 이용한다.

둘째는 우수한 인적자원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4위를 하고, 세계청소년기능올림픽에서 14번 우승했다. 우리 교포들은 전 세계에 퍼져있다.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천시(天時)와 지리(地利)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운명의 중심이 우리쪽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화복과 단결이다. 우리는 10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깎아 내린다. 장보고는 중국 역사에도 오르지 못한 인물이다. 일본에는 장보고를 모시는 절까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역적으로 몰아세웠다. 우리가 정말 갖춰야 할 것은 서로를 북돋아 주고 칭찬해주는 것이다.

중국의 용(龍)은 돼지의 얼굴, 소의 뿔, 뱀의 몸, 물고기비늘, 악어발톱 등 9가지 형상에서 유래되었다. 중국은 다민족국가라 각 민족이 좋아하는 짐승의 몸을 모아 황제 옆에 두고 많은 민족을 다스리게 한 것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까지 화(和)하자는 의미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이 살면서 대국이 되었다. 이 점을 우리 지도층이 배우고 틀린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맹자가 '天時는 不如地利하고 地利는 不如人和'라고 했는데, 우리는 천시와 지리도 얻었고 사람도 있지만 화는 얻지 못했다. 세상은 달라졌다. 이상적인 사람을 지덕체(智德體) 순서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덕지체(德智體) 순서로 중요도가 바뀌었다. 세상의 평가가 바뀌었으니 우리도 그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 인구는 많고 지하자원의 부족으로 외국과 교역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무역하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다. 또한 천시와 지리를 얻었으므로 인화만 기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선진사회란 윤택한 경제생활, 믿고 사는 생활, 함께 가는 공동생활을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린 마음으로 상자 밖을 보면서 행복을 향해 안전한 항해를 하는 것이다. 



■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 기조강연II

#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운영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21세기의 메가트렌드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이다. 지식기반 중심의 국경 없는 세계화는 결국 하나의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의미한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력이 떨어지고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

도의 시대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계화시대에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화를 주도한다. 또 세계화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성장이 중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특히 세계화시대에는 더 이상 제조업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블록화가 늦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이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시장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갈수록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출중심의 성장이 멈추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고부가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현 트렌드에 편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26년이면 국민의 20% 이상이 노인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원인은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에 기인한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도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1996년까지 인구억제정책을 지속하다가 그나마 2003년 이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18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60만명이다. 10년 뒤면 660만명, 2050년에는 1천600만명이 될 것이다. 현재 9.5%인 노인인구 비율이 2050년이면 38%가 넘는다. 우리 사회의 활력이 유지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사회변화를 야기시킨다.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가구가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1인 가구가 20%에 육박한다. 1인 가구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현재 노인 한 명을 모시는데 7.9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2020년이면 4.6명, 2050년이면 1.4명이 노인 한 명을 모셔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봐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증가에 따라 저축이 감소한다.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기존 취업인구의 고령화로 생산성도 떨어진다.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을 5% 내외로 보고 있다. 2010년까지는 4.9% 내외를 유지하지만 2011~2020년까지의 10년간은 낮은 4%대, 2021~2030년은 2.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령화는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고령자들이 소비의 중심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이것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보건, 의료, 금융, 레저, 관광 등 고령친화적 서비스산업의 성장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게 돼 사회적 부담이 늘어난다. 그리고 고령화는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세입 역시 줄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를 기회로 삼아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노동력 자체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의 성장전략, 사람 중심의 성장산업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여성과 고령인력, 외국인 등 잠재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인구정책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노후안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제도 메가트렌드에 부흥하여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건교부장관 초청특강

# 혁신 그리고 통합, 선진한국으로 가는 길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성** 공한 사람과 조직에는 꿈과 비전이 있다. 대한민국의 비전은 선진한국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적인 선진국의 조건은 국민소득 2만불 이상, OECD 회원국,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에 해당,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적개발지수 충족 등이다. 그러나 4가지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 같은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한국은 대외적으로 10위권의 경쟁력있는 국가, 대내적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의 맹추격을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혁신과 사회적 통합 없이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 혁신은 과거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는데서 시작한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혁신이 없으면 발전도 생존도 불가능하다.

혁신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관리'이다. 다행히 우리는 외환위기를 통해 혁신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외환위기는 기업에게 고통을 줬지만 혁신을 일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제는 공공부문 혁신이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은 어렵고 힘들다. 참여정부도 어렵고 힘든 일만 찾아서 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그것이 가야할 길이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일이다.

다음은 지역간 통합 즉, 지역균형발전이다. 우리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서울은 팍 차서 경쟁력이 없고 지방은 없어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서울을 비우고 지방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 경쟁체제가 국가중심에서 도시나 지역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다. 서울은 빈 공간을 이용해 최고의 지식기반을 가진 국제도시로 키우고, 지방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으로 살기 좋고 기


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방은 자립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펌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 중인 행정·혁신·기업도시가 바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행정도시는 충남 연기·공주에 49개 행정기관을 이전시켜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건설된다. 혁신도시는 178개의 공공기관을 10개의 지방으로 이전해 건설된다. 이들 10개 도시는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가 끝나면 균형발전정책도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미 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은 주택문제다. 계층간 통합의 필수 조건은 주거안정이다. 집값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국민들이 힘겨워한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24% 올랐고, 강남이 27% 올랐다. 올해 강남의 경우 0.4%밖에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했다. 버블7이라는 분당, 평촌 등도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도 1.5% 내렸다.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전세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시장'이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과거에는 실수요보다 가수요, 투기수요에 의해 가격이 올랐으나 앞으로는 그간의 부동산정책으로 가수요나 투기수요는 제어가 가능하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상향 이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37만호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또한 금년 9월부터 상한제, 원가공개제, 주택청약가점제 등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이 기존보다 20~25% 낮게 책정될 것이다.

지금은 '혁신생존'의 시대이다. 인류 역사는 혁신하는 사람에 의해, 혁신하는 국가에 의해 쓰여졌다. 개인의 혁신, 조직의 혁신, 사회의 혁신을 통해 국가의 혁신도 가능하다. 혁신을 통해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시길 바란다. 



### 산자부장관 초청 대토론회

# FTA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우**리의 산업 부문 중 조선,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은 세계 1~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TOP수준의 기업과 세계 일류 상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이다. 내부적으로는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5년간 두 자리 증가를 하고 있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무역규모도 금년에는 3천6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플랜트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3만, 4만불로 가기 위해서는 환율, 노동비용,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세계 1~5위를 지키는 품목들은 모두 범용 기술 부분이다. 즉, 핵심기술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제조 공정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 원천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에 올라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면 오래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모두 10년, 15년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정도이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채워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유통, 물류, 디자인, 법률, 회계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부활로 동북아경제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급속히 늘고 있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중국이 가장 많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글로벌화에 따른 M&A 확대이다. 철강생산 세계 1위인 미탈스틸은 2위 아르셀로를 인수해 세계시장 11%를 점유했다. 일본 도시바는 원전 전문회사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 에너지시스템 사업을 확장했다. IBM은 중국의 최대 PC업체인 레노버를 인수했다.

한중일 산업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조선은 당분간 우리가 최고 수준으로 갈 것이다.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앞서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자동차는 일본이 우위에 있고, 철강도 한일이 우위지만 중국은 물량 면에서 앞서 전체 수출이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기계류도 우리보다 일본이 우세하다.


우리는 IMF를 극복하면서 세계 12위의 무역·경제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FTA가 확산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리딩 이노베이터

가 되지 못하면 경쟁력에 한계가 오고, 지속적인 성장에 정체가 올 것이다. 우리가 3만, 4만불로 가려면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창조적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FTA가 실행되면 교역이 늘어나면서 기술교류, 기술개발 협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과거와 달리 정부가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야 하며, 전문화된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혁신도 국내 우수인력, 연구소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야 한다.

중소기업 문제는 역시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석·박사가 입사하면 지원해 주고, 교수들이 안식년을 맞으면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기술, 공정기술만 바꾸면 단기적으로 생산성이 급방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전국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센터를 만들고, 테크노파크를 설립해 성공모델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확산할 생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문화로 형성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우수하려면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부터 동등하지 못한 의뢰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대기업이 환율문제나 인건비가 상승해 기업수지가 낮아지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깎는 것이다. 상생협력이 잘 못 생각하면 대기업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서로가 윈윈하여 도움이 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경영이다. 이제는 재무 성과뿐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따져서 우수한 기업, 존경받는 기업으로 평가한다. 최근에는 국제표준의 제정 움직임까지 있다. 그래서 기업마다 환경과 인권, 노동,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업무관행, 그리고 소비자를 얼마나 우선하느냐, 지역사회에 얼마나 공헌하느냐를 우수 기업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산자부도 주관이 돼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국제표준화에도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자 현 좌표이다.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우리가 한미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인하나 수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쟁력의 이전이다.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원천 기술분야에서 기술과 투자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한미FTA 협상으로 미국시장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비관세 장벽 완화로 시장 접근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해 한미간 통상마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기

김세원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한미FTA 협상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장점은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도 있다. 첫째는 산업구조 전망에 대한 확고한 비전 없이 한미FTA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FTA는 우리가 진출할 수도 있지만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확고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농업부문이다. 농업의 구조개선 없이는 앞으로 어떤 FTA도 체결할 수 없다. 셋째는 국내협상이 대외협상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전문가,

### 산자부장관 초청 대토론회

# 한미FTA의 산업별 영향과 발전전략

술정책도 상호 기술 인정 협정 내용을 포함시켜 앞으로 한미간 기술분야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통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고, 투자환경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환경을 마련했으며, 법령 재개정 절차에서 투명성이 강화되고, 투자자간 또는 국가간 분쟁 절차도 합의했다. 개성공단 문제도 연결로를 남겨둬으로써 북한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에 관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놨다.

한미FTA는 그 결과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자동차, 전자, 섬유산업이 산업별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본다. 다른 산업들도 관세 인하로 인한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 효과는 단기적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 두 개를 합한 총효과를 보면 제조업을 전체로 놓고 對세계, 對미로 나눴을 때, 수출의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달러, 13억달러 정도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산업별 전략을 세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하다. 다만 일본이 앞서고 우리가 중간, 중국이 쫓아오는 형태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굉장히 보완적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데, 미국은 서비스업, 농업에 강점이 있다. 제조업도 우리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이 강한데 반해 미국은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분야인 의약품, 항공 등에 강점이 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우리가 세계 수출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반쪽밖에 없는 원천기술과 생산기술을 합해서 우리가 이 둘을 가진 일본과 독일을 제3국 시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는 것이 한미FTA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투자와 기술 협력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전문화, 대형화, 글로벌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 사회지도계층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증거가 뒷받침 돼야 협상력이 재고될 수 있고, 이해계층에 쫓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운영 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시스템이 없다. 이것 없이 국내 경제 필요에 의한 상충책만 가지고는 바람직한 한국 경제발전의 전망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일용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개방=발전', 개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2대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어제 김재철 회장께서도 밖을 보자는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준비

된 개방을 하자는 얘기가.

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로 참여 민주주의, 성장과 분배의 균형 잡힌 발전, 동북아 중심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내세웠다. 그런데 FTA 협상을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로 혼란을 야기한다. 그 점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농촌과 농업의 붕괴이다. 어디에도 농촌과 농업이 붕괴된 선진국은 없다. 일본은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과 FTA를 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이익에 관련한 문제이다. FTA는 미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그들의 이익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점에서 우리의 이익이 많다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FTA 체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 농업,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도소매업, 숙박, 의료, 교육 등은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준비가 충분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CEO 경영특강 I

# 경영환경의 변화와 SK텔레콤의 테크놀로지 리더십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최** 근 경영환경은 산업간, 지역간 경계가 사라지고 보다 개인화됨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로 손톱만 한 저장장치에 백과사전 분량의 정보를 넣을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모두 바뀌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매년 국가간 교역이 17%씩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잘하면 살아남는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세계적인 것이란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화(Personalization)에 있어서 지금은 소비자만능시대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공급이 넘친다. 이제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업이 가능해지는 시대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Corporate Responsibility)이다. 기업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기업은 안정과 성장을 통해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 윤리, 투명, 사회공헌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SK텔레콤은 1996년 1월1일, 국산 CDMA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고속에서는 아날로그가 9.6Kbps, 디지털은 14.4Kbps의 속도를 냈다. 이것만으로도 깨끗한 통화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HSDPA이다. 14.4Mbps의 속도로 200자 원고지 5천장을 1초에 보낼 수 있다. 이로 인해 유선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래나 정보교환이 가능해졌다.

우리는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앞선 이들을 모방하는 전략을 써왔다. 그러나 SK의 경영관리시스템은 그렇게 해서는 트렌드에 뒤진다는 것을 알고 남보다 먼저 가는 길을 택했다. 결국 창의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남을 따라해서는 발전이 없다.

또한 단위 조직의 장은 유능한 부하를 복수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5명을 만들면 혼자 하는 것보다 5배의 성과가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머리를 쓰게 해서 창의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것을 연구한 것이 SK경영관리시스템이다. 많이 보면 많이 나누는 것이


다. 회사에 돈을 잘 벌어드주는 사람을 지연, 학벌에 얽매이지 않고 대우해주는 것이다. 직원들이 머리를 쓰게 하자면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

유공에서 이동통신 쪽으로 옮겨오면서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든 목숨을 걸고 실패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을 세계일류의 이동통신사로 만들게 되었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자 시장점유율이 57%였다. 그런데 18~20세의 점유율은 7%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에게겐 전망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마케팅본부장과 기획부 직원이 와서 TTL을 만들겠다고 자금 400억원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기획서와 CF는 맘에 들지 않았지만 그간 그들의 성과가 좋았기에 믿고 밀어줬다. 인간대우경영과 그간의 성과, 그들이 나보다 뛰어난을 인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SK텔레콤의 기술적 리더십추구 사례를 보면 휴대폰 컬러링은 특허를 받지 않은 것이 지금도 후회된다. 특허를 받았다면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멜론'은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음악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4월, 뉴스위크는 아이팟이 멜론에게 질 것이라는 보도를 냈다. 네이트 드라이브는 휴대폰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것이다. 모네타를 통해서 모든 결제, 주식매매, 쇼핑 등이 휴대폰으로 가능하다. 네이트도 뉴스, 날씨, 운세 등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다.

기업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세계시장은 원마켓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육성해야 한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네트워크 활용 기업 중 최고라고 보고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규모는 세계일류 기업보다 작지만 적은 투자 및 동일 설비로 최고 성과를 내고 있고, 뛰어난 마케팅으로 세계와 승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투자자들로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이다. 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큰 시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중국에 1조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힐리오브랜드로 가입자 10만명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해외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 고성과 기업을 향한 GE의 끝없는 변화와 혁신

황수 GE코리아 사장



**GE**는 1878년 발명왕 에디슨이 창립한 이래 현재 100여개국에서 1천630억불의 매출과 31만명이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1896년 다우존스산업지수에 최초로 포함된 12개 기업 중 현존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1976년 GE코리아가 설립되어 현재 23개 사업체에서 1400명이 일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17억불의 매출을 올렸으며, 4개의 제조공장과 2개의 개발운용센터가 있다.

제프 이멜트 회장은 잭 웰치 전 회장이 쌓아놓은 명성과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짚어지고 2001년 45세의 나이로 회장에 취임했다. 그래서 그는 전통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일에 주력했다.

이멜트 회장은 취임 후 재무상태를 해부하면서 6가지를 생각했다. 최고의 제품과 기술을 가지는 것, 글로벌화된 전략을 가지는 것, 항상 No.1 회사가 되는 것, 좀 더 빠르고 명석해지는 것, 구성원들이 꿈을 실현하는 회사가 되는 것,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것 등이다. 그는 장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매출의 80%를 기술과 서비스 부분에서 올리고, 나머지 20%를 기존 전통사업에서 올리도록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GE는 5년간의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매출 50% 증가, 이익 64% 증가, 현금흐름 250억불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했다. GE는 장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성장의 프로세스화는 인수합병이나 환율변동이 아닌 기존사업을 통해 자체성장을 하는 유기매출성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GE에서는 이것을 6개의 성장 수레바퀴라고 한다. 테크놀로지·서비스, 고객중심, Commercial Excellence, 세계화, 혁신,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성장리더의 육성이 그것이다.

테크놀로지·서비스에서 이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성장전략으로 삼자는 환경성장전략사업을 뜻한다. 2010년까지 200억불 매출을 목표로 연구개발비를 두 배로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2012년까지 1% 줄이려고 한다.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는 이멜트 회장 취임 시 424억불로 전 세계 4위였으나 프로모션에 노력한 결과 2007년도 파이낸셜타임스 기준으로 세계 2위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최대 매출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1위가 아닌 것이 성장의 기회가 된 것


이다.

GE의 세계화전략은 'Company to Country'이다. 세계화에 따른 신흥시장 등 단일고객(국가)에 GE제품과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또 'In the Country For the Country'라는 세계화전략을 통해 인도 방갈로어, 중국 상하이, 독일 뮌헨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혁신에 있어 GE는 'Imagination Breakthroughs'라는 상상력 돌파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1IB는 1억불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다. 현재 기술적 혁신, 상업화 혁신 등 90개 이상의 IB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GE는 석탄을 태워서 발생하는 오염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전 세계 3분의 2가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수와 소금기 있는 물을 담수로 만드는 기술과 관개, 산업용수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GE는 2004년 내외부 인재분석을 통해 5가지 성장리더의 특성을 찾고, 이를 2005년부터 임원평가에 적용하기 시작해 2006년부터는 전사적으로 평가하면서 직원들을 성장리더로 육성하고 있다.

5가지 성장리더의 특성은 첫째로 시장흐름과 트렌드, 고객 니즈를 파악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둘째는 정보를 전략화해 구체적 행동과 결정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사람, 셋째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상상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 넷째는 직원들이 충성심을 가질 정도로 포용력을 가진 사람, 다섯째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다.

GE가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창조적 파괴를 행하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멜트 회장은 '과거로부터 배우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부정한다'라고 했다. 장기적 성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6개의 성장 수레바퀴가 일관된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견실한 성장과 매출이 증대함과 동시에 이익도 증대할 수 있도록 경영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5~6년간 GE가 느껴온 점이다. 

폐회기념강연

# 시장경제 선진화와 공정위의 역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지**금은 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대세이다. 우리나라도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요인은 세 가지이다. 시장

안에 독점이나 과점, 카르텔, 경쟁하는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피하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가 있는 경우이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문제 삼지는 않지만 이를 남용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카르텔은 적발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국외에서는 카르텔을 인정하지만 국내에서는 증거가 있어도 끝내 부인한다. 카르텔이 나쁘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체결된 후로 경쟁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생존하자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90년대까지 좀 더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하는 정책을 썼다. 그러나 최근 그것이 꼭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과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진정한 국제경쟁력은 국내에서 경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으로 해외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역할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경쟁주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조성, 소비자 보호 등 크게 4가지이다. 경쟁정책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쟁은 기업에게는 피곤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좋은 것이다. 기업들이 경쟁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도 손해를 본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해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간다.

독점이란 말은 경제적 용어이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이다. 사업자는 누구나 시장의 지배를 받는데,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며,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업자를 육

성해왔는데, 갑자기 그들을 시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경제가 마비된다.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되 지위만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배적 위치를 가지는 대기업의 존재 자체가 경쟁기업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카르텔 지향적이다. 우리는 주위의 눈치를 보고 행동을 조율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래서 어느 분야나 다 비슷해진다. 이것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결국 카르텔이 된다. 그런데 고민은 카르텔을 적발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공정위의 행동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가지 않는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이 독과점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국내시장만 중요시 여겨 막고 있다고 불만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에서 경쟁부문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대규모 기업집단을 보통 재벌이라고 한다. 한국의 재벌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했지만 폐해도 많았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예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성장한 경우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해서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중소기업이 성공하자면 재벌의 계열사가 되거나 협력집단이 돼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로 이런 구조가 깨져야 시장경제 구조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있다.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원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납품단가를 깎아버리는 것이다. 이래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우리나라에는 선진적인 기업과 경영인들이 있다. 하지만 경제시스템과 관련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질서가 잘 갖춰져야 한다. 또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 名品人生을 살자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우리는 지금 생산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 시장을 가든 상품들이 가득 쌓여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찾아오지 않아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만큼 우리는 경기불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류백화점이나 고급시장에는 '명품관' 또는 '명품점이 있고, 여유있는 고객들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루이뷔통이 '트리뷰트 패치워크'라는 핸드백을 단 24개 한정으로 세계시장에 출시했는데,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예약판매로 모두 팔렸다고 한다. 그 값이 웬만한 자동차보다 비싼 5만2500달러(약 5천만원)로 화제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루이 뷔통에 질세라 또 다른 명품브랜드 에르메스는 백금 버클에 총 1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손잡이에 박고 가죽으로 만든 '크로커다일 버킨'을 12만 달러에 단 2개를 세계시장에 내놓았다고 한다.

문화의 시대를 맞아 불후의 명작들이 명품 갤러리에서 상상이 미치지 않는 고가에 팔리고 있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보다 유망한 투자대상이라고 고미술시장 호황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1년 전에 박대성 화백을 인간 개발경영자연연구회에 초청하고 그의 작품세계와 최고의 작가로 성장하기 까지 작가로서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모든 참석자들이 크게 감명 받았던 적이 생각난다.

중앙일보 '정진홍의 소프트파워' 칼럼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회'라는 제목의 글을 봤다.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 단원들의 손에 쥐어진 악기는 비록 명품은 아니지만 단원들은 그들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타고난 지위와 상속받은 재산의 힘이 아니라 불행하기 그지없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결연히 맞서 싸워 그들의 삶을 창조적인 운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감동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창조하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생이란 험난한 바다의 파고를 넘고 넘어 마침내는 행복이란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다. 불후의

명작을 남긴 화가들은 보통 사람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산고의 고통을 극복하고 불후의 작품을 후세에 남긴 것이 아닌가. 짧은 인생을 불후의 작품으로 만들어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명품인생'을 사는 순수한 예술가들이다.

호레이스 그릴리는 '인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명성'이란 물거품과 같다. '인기'란 우연의 결과이다. '부'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날개를 달고 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영원한 것이니 바로 인격이 그렇다"

그렇다.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존재가치를 영원하게 하는 불후의 명품이 바로 '인격'이 아닐까. 창세 이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억조창생 중에 '자기'라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떠한 역경에 서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안에 내재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존재를 '인격'이란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명품인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명품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임스 알렌은 그의 저서 <생각의 힘(As A Man Thinketh)>에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자기가 생각한대로 된다고 했다. 마음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다.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위력이 역설되고 있다. 신약성서의 저자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립보 2:5)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 할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만하며..."

자기 자신이 탁월하게 덕있는 사람 또는 높이 평가받는 사람으로서 존경 받는 사람일지라도 이상과 같은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참 자기를 세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인간은 예술혼을 가지고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고 인생고해의 파고를 넘고 넘어야 하는 것이다. 요즘음 가짜 박사의 수난현상을 보면서 이 글로 이 달의 발행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진실한 삶에서만 '명품인생'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회원 소식**

- **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제4회 '중소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정우철 (주)일삼 회장, 곽노권 한미반도체(주) 회장, 정봉규 (주)지엔텍홀딩스 회장 등 3명을 선정했다. 헌정식은 기업은행 창립 46주년인 8월 1일 본점에서 거행됐으며, 본점 기념관에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다. 또한 '제1회 IBK 기업은행 대학(원)생 대상 연구 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연구논문 부문 5편, 아이디어 부문 16편을 선정 발표하였다.
- **김용복 (서울)영동농장 회장 겸 한사랑농촌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7월 충북 '음성동요학교'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교재로 <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논술 동요한마당>을 CD와 함께 발간하였다.
-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선화랑·선아트센터에서 열린 프랑스 미술계의 원로 거장화가 4명(Claude ABBA, Dragutin DEDIC, Moreno PINCAS, Yeaou Marie ZACCHI)과 한국의 중견화가 4명(이숙자, 강석진, 구자승, 한풍렬)의 한·불 작가전(그림과 시의 만남)에 8월 6일부터 18일까지 본원 회원들을 초대하였다.
- **GE코리아(사장 황수)**는 지난달 12일 미국 뉴욕주 오시닝시에 위치한 잭 웰치 리더십 개발센터에서 한국 CEO들이 참여하는 'GE 크로톤빌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주)태창가족(사장 김서기)**은 국내 최초로 세계프랜차이즈협회(IFA) 공식 가입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태창가족 홈페이지(www.tcfamily.com) 및 각 브랜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전순표 세스코 회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소피텔 엠배서더호텔에서 열린 동국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우먼타임즈(사장 신숙희)**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는 '2007 대한민국의 친환경 건강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07년 9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연락처 : 박영호 국장(02-736-5999)
- **성도GL(사장 김상래)**은 파주 헤이리 회원사로서 지난 3년간의 공

사 끝에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여 9월 1일 '씽크씽크 아트 뮤지엄'을 개관한다. 이에 한국메세나 협의회의 중소기업 매칭펀드를 통하여 1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파주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지원하게 된다.

- **우양장학재단(이사장 정의승)**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방화3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2007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재단은 95명의 장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등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 **윤갑원 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이사장**은 도서 <반평(半坪)의 진리(眞理)> 개정증보 3판 출간을 기념해 지난달 16일 제1513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무료 증정하였다. 윤 이사장은 현재 본원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활발한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조천제 한국블렌차드컨설팅그룹(주) 대표이사**의 장녀 정연양의 결혼식이 지난 8월 18일 웨딩의 전당 토포즈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임정희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상임대표**의 장녀 윤선양의 결혼식이 지난 8월 18일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영관 회원(거벽엔지니어링(주) 사장)**께서 지난 8월 8일 오랜 병환의 생활을 접으시고 편안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모임 소식**

- **이종기업동우회1그룹(회장 유상옥 / 총무 고지석)**은 지난 8월 27일 오리와 참계에서 제242차 정기모임을 가졌다.
- **지중해 클럽**에서는 권오춘 시인의 '양수리 한옥'에 초대하는 모임을 갖는다. 9월 15일(토), '인간문화재'가 직접 지은 한옥이자 안팎에 옷칠까지 한 문화재급 한옥에서 '가야금 병창'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지중해클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백현기 대표변호사	9월1일
KCTC	신태범 회장	9월1일
유신산업(주)	김동철 고문	9월1일
창영전자	박세근 사장	9월2일
(주)한철상사	조병철 사장	9월15일
주5일넷(주)	이용원 사장	9월15일
동익건설(주)	박성래 회장	9월20일
(주)삼우ENI	조옥환 대표이사	9월21일
원자력안전아카데미	황경호 이사	9월30일

## 연구원 소식

• <로마인 이야기> 글쓰기 대회 시상식에 한국인간개발연구원상 수여  
한길사와 오마이뉴스가 주관하고 인간개발연구원과 Yes24가 후원하는 <로마인 이야기> 글쓰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8월 2일(목) 개최되었다. 시상식에는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지산 상임고문이 본원 부회장으로 참여하여 신반포중학교 이진웅 학생에게 인간개발연구원상으로 한국사 전27권을 상품으로 수여하였다.

• Better People Better World 온라인 웹진 서비스 개시  
그동안 회원들에게 오프라인으로 발송해왔던 월간지 'Better People Better World'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웹진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02-2203-3500(108)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 소식

### • 제천시, 평생학습문화축제



지난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제천시가 처음으로 '배움, 웰빙 그리고 풍요로움'을 주제로 하는 2007 제천 평생학습문화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에 걸쳐 제천체육관과 야외음악당에서 열려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번 축제는 행사 장소에 모두 57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소개와 전시, 체험이 이루어지며, 축제참가자간 학습정보교류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평생학습문화축제를 개최해 노하우를 구축한 다음 추후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 열리는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유치신청을 하기도 했다.

### • 장성아카데미, 12주년 기념특강



1995년 본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아카데미를 시작한 전남 장성군은 아카데미 개설 12주년을 맞아 9월 21일(금)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을 초청, "정부혁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12주년 기념특강을 갖는다. 장성군은 지난 2005년 9월에도 "민선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대주제로 10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12주년 기념특강에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 김제시, 지평선축제 준비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전북 김제시의 지평선축제가 오는 10월3일부터 닷새간 김제시 벽골제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의 백미인 농경체험 프로그램은 벽골제 일대에서 벼수확, 탈곡, 방아질기 등 가을걷이와 새참 먹기, 연날리기, 그네타기 등 옛 농촌 풍경을 재연하며, 사적 482호인 김제 동헌과 시내에서는 '사또 부임 행차'와 전통호국무예인 '벽골 태격' 시범, 관광객 대동놀이 등이 열린다. 또 사적 제11호로 한국 최고(最古)이자 최대의 저수지 독인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도 개최된다. 지평선축제는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묶고 민족의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마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네 자신을 알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충고하는 것"이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말했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자신에 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참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왜 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프로인가, 샐러리맨인가? 많은 것에 관해 스스로 자문하고 깊이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29일은 4개월 전에 시작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참가자들이 16주의 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한 뿌듯함과 흥분함으로 수료를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2시간을 한 주 동안 정해진 주제를 학습하면서 새롭게 인식된 것들을 함께 나누며 자신을 성장하는 대장정을 마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스스로 주간에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도전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특별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참가자들 스스로 대견해 했다.

수료하는 자리에서 모 제약회사 임원은 대학생 자녀를 이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 평생교육원의 강사인 한 참가자는 "해직의 충격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과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 수치가 허용수치를 몇 배씩이나 초과하는 매우 희귀한 병을 얻게 되었다. 더욱이 부정적이고 분석적이며, 의심과 걱정이 많은 성격까지 가세해 인생에 먹구름이 덮힌 것 같은 상태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 되었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건강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3%내에 드는 전문가가 된다'는 비전도 보이게 되어 지금은 흰 구름이 한 점 떠 있는 맑은 하늘 같다"고 활짝 웃었다.

대학교 다닐 때도 필기하는 것이 싫어서 전화번호도 무엇이든 되는대로 외워 버렸다는 그는 이제는 하루 할 일도 목록을 작성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80% 정도는 정착 되어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공학 전공인 기독교대학 교수 한 분은 "내가 10년 후에는 이 EPL프로그램의 개념을 스스로 실천한 경험을 통해 전공만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태도와 습관을 변화하여 영성이 향상되도록 돕는 탁월한 멘토요, 교육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크리스천으로서의 롤 모델이 될 것을 다짐했다.

삼성그룹에서 인사, 교육을 담당했던 한 분은 "일에서의 성취가 너무 즐

거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지고 위기를 맞게 된 상황에서 삶의 균형과 관련해 꿈과 소망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태도와 습관을 바꾸는 것도 목표를 세워야 이루어진다. 이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목표설정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일상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다 많이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탁월한 코치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김재미**

## ... 한국엘엠아이 소식

###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EPL) 77기 과정 수료식

8월 29일(목) 송항섭 LMI 수석 FT의 진행으로 김태균 인간개발연구원 부원장 외 4명이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과정 수료식을 마쳤다.



### • 숙명여대,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9,10기 과정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학'을 지향하는 숙명여대에서는 교수진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EPL 과정 9,10기 교육이 진행 중이다. 이번 과정은 안효열 한국LMI 마스터코치가 FT(Facilitator)를 맡았다.

###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 ■ 한국엘엠아이(주) 라이선시 : Big Dream & Success 모임안내

9월 11일(화) 오후 6시부터 BIG DREAM & SUCCESS 안국 교육장에서 "글로벌 금융환경과 재테크 전략, 아트펀드"라는 주제로 이길영 미래에셋 팀장의 강연이 열린다. 관심있는 개인, 회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엘엠아이(주) www.lmikorea.com 02-2202-8700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5층

# 우리 곁에 다가온 沈香은 어떤 의미인가?



碗天 金永孝 선생

**인**간개발연구원 김태균 부원장께서 오랜 시간 틈틈이 찾아와 보이차와 고미술품, 그리고 침향을 심도 깊게 배우며 교류하신 인연으로 회원들께 역사상 왕들의 전유물이었던 침향을 쉽게 알려 주기를 요청 받아 지면을 통해서나마 침향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진다.

침향은 불교의 법화경에서 하늘의 향기로 비유되어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성경에서는 침향을 여호와가 직접 심은 기록, 예수의 장례절차에 사용된 기록을 비롯해 몇 곳에서 언급한 내용이 보인다. 동서양의 역사 속 오랜 세월을 통해 소개되지만 여기서는 역사상 기록 하나를 소개하겠다.

세종 14년에 예조판서 신상(申尙)에게 이르기를, "주사(朱砂)와 용뇌(龍腦)는 비록 귀한 약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가서 구하면 얻을 수 있으나, 침향(沈香)으로 말하면 중국에서라도 쉽게 얻지 못할 것이다. 지난번 왜인(倭人)들이 가져오는 침향이 흔히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값값기를 너무 헐하게 하였으므로 다시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 침향은 왜나라에서도 나지 않는지라 널리 다른 나라에서 구하여 가져오는 것이니 비록 그 값의 갑절을 준다 하더라도 좋으니 예조에서는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조선초기 왜상과의 침향 거래를 국가차원에서 논한 기록이다. 물론 가격 시비로 여러 차례 거래 속에 곤란을 겪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음을 기록 속에 알 수가 있다. 임금이 조정에서 값을 곱절로 주고도 왜상들을 달래어 침향을 사들이라고 명한 것을 보면 침향의 용도가 과연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장면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신라시대 이후로 오직 왕만이 사용한 침향, 그 실체와 효능이 참 궁금해지는 사건임은 틀림없다. 침향의 효능을 간단히 말하면, 신장 즉, 비노 생식기(水의 기운)에 제일 먼저 작용하여 불입과 정력을 찾아 주며, 신장과 상생관계에 있는 간장(木의 기운)에 작용하여 간장질환을 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뇌질환, 심장질환 등 혈관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능력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던 노폐물이나 이로 인해 몸 속에 자리잡고 있는 피고름을 모두 내어 보내는 작용을 하며, 자연스럽게 몸이 깨끗해지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젊음을 찾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침향으로 나올 수 없는 병은 무엇으로도 낫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귀하고 오직 왕만이 사용한 침향은 무엇일까 하는 기본적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다. 침향이란 지구상에 오직 베트남에서만 자라는 침향나무의 물관에 수지(樹脂)가 오랜 세월 서서히 점착되어 생성된 덩어리를 말한다. 소나무로 비유하자면 송진과 같은 것이다. 침향나무는 통상 100년 이상의 수명을 넘겨 말라죽는데, 이때 자연스레 생성되는 것을 숙결(熟結)이라고 하며 가장 가치있는 침향이다.

베트남은 오직 자국에서만 자라는 침향의 소멸을 우려하여 1992년 이후 침향나무와 침향을 국가적으로 강력히 보호하고자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였다. 실제 국제적으로 소량이나마 유통되는 것은 1992년 전에 베트남으로부터 획득한 소장가들의 소유에서 암암리에 내어놓는 것이 고작이다.

약재로 사용하는 수준의 숙결침향은 생성기간이 최소한 몇 백년이 걸려, 인공재 배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거래시 장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침향의 가격은 끝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 김영호 선생이 침향 관련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코리아나박물관 특별전시 '향-오감전(香-五感展)'에 한나라 때 만든 향로와 함께 침향 한 점을 협찬 전시하고 있다. 기회가 되면 만나서 또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약속드린다. ☎



김영호 선생

사단법인 한국 어울문화원에서 보이차와 다도구를 강의하며, 84년 이후 차와 침향에 관한 유물을 수집 연구하고 있다. 2006년 7월 14일~30일, Gallery LUV에서 清代茶陶瓷名品展, 2007년 5월 25일~6월 03일, 가나아트센터 공예관에서 焚香 煮茶展을 개최했다. 2003년 이후 문화원에서 차와 침향 강좌를 하고 있으며, 은행 W/M, 와인스쿨에서 보이차와 침향에 관한 특별강좌를 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를 비롯한 각 포털사이트에서 보이차와 침향을 중심으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 '빨리빨리'에 희망이 있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

문용린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 美 미네소타대 교육심리학 박사  
| 교육부 장관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청소년  
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한 이야기가 있다. 외국 사람들이 지적하는 한국인의 특성에 관한 글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만 살아온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는 특징이 그들의 눈에 확 띄는 모양이다. 이른바 '한국인의 빨리빨리 Best 10'이다.

- 정류장에서 떠난 버스를 뒤쫓아 쫓는다.
-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지퍼를 내린다.
-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퇴장한다.
- 신호등을 기다리며, 언제나 출발자세로 긴장해있다.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양치질한다.
- 웹사이트가 3초에 안 열리면 닫지도 않고 다른데 클릭해 옮겨간다.
- 편의점 등에서 음료수를 따서 마시면서 계산한다.
- 자판기 커피 나오는 걸 채 못 기다려 컵을 잡고 기다린다.
- 즉석 컵라면을 3분되기 전에 뚜껑을 열고 닫고 하다 먹는다.
- 삼겹살이 익기를 기다리며, 모두가 젓가락을 들고 대기한다.

이런 빨리빨리 특징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색하기는커녕 친숙하게 들린다. 우리들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하고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행동들이 특이하게 보이는 가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빨리빨리라는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그들의 긍정적 평가다. 우리는 이 빨리빨리를 조급성, 강박증, 충동성으로 비하하여 벗어나고 싶은 오명으로 치부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런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한국인의 활력 즉, 바이탈리티(vitality)를 느낀다고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프리 존스는 <나는 한국이 두렵다>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사람들처럼 변화에 대한 부담(혹은 두려움)이 적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등 다른 나라에서라면 5~10년은 족히 더 쓸 물건도 한국에서는 1~2년만 되면 골동품이 된다.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변화에 익숙하며, 변화를 좋아하고, 또 즐기기도 한다."

중국 인민대학의 마상우 교수도 이런 말을 한다.

"한국인들이 부끄러워했고 한때 세계적 웃음거리였던 '빨리빨리 문화'도 한류의 등장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빠른 전개는 한류에 빠진 중국인들을 매료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빨리빨리 습성에서 기인하는 부지런함과 과감한 투자도 거론하지 않으면 섭섭하다."

일본 교토통신의 전 서울지국장이던 히라이 히사시는 빨리빨리의 특징을 빗대어 "한국인의 저돌성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라고 했고, 일본의 전 소니 회장이던 이데이 노보유키는 "무서울 정도의 투자와 유연성을 앞세워 쫓아오는 한국에 당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빨리빨리라는 한국인의 특징에 대한 언급은 그 근원이 깊다. 중국의 고문헌에 이미 한국인(동이족)에 대한 언급이 '가무를 좋아하고, 길을 때도 뛰어 가는 민족'이라는 행동 특징이 부각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빨리빨리라는 성격 특징이 안고 있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특징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잘 활용하여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 같다. 빨리빨리의 성격은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 성격 특징이다. 한국인이 뛰고, 뛰고, 저돌적인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때문이다.

이런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 같다. <발칙한 한국인>을 쓴 스킵 버거슨이라는 미국인이 아주 짧지만 확실하게 짚어준 말이 생각난다. 그는 <대한민국 사용후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인, 그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한국인의 에너지를 느낀 사람이다.

일본 사이타마 대학의 우종원 교수는 일본인을 '낮추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한국인은 '튀는 사람들'이라고 간결하게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살길은 이 튀는 성격을 죽이는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짜로 튀게' 만드는데 있다고 하면서, "튀는 한국인에게 건배를 들자"고 외친바(중앙일보 시론, 2007.8.16) 있다. 정직과 질서 그리고 친절이 가미된 빨리빨리가 진짜 빨리빨리이고, 이렇게 튀는 한국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KHOL**



# “인생이 즐거워지는 315만 가지 방법, 교보문고”

삶의 특별한 즐거움을,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교보문고를 만나세요!  
교보문고에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15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금호고속 전세버스가 사랑받는 이유는?

- 한국표준협회 선정 서비스 품질지수 1위 기업
- 건교부 지정 6년연속 교통안전 우수업체
- 28석 우등형, 45석 일반형 선택
- 규정요금 준수
- 종합보험 가입
- 10대 이상 주문시 에스코트 서비스
- 위성TV 등 최신 설비
- 전국 운송 network 서비스